진도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물가안정 · 교통 · 건강 · 생활민원 등 10개 분야별 계획 수립

15일부터 4일간 종합상황실 설치 10개 반 편성 긴급 상황 대처

진도군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18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 맞춤 계획을 중점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0개 반을 편성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 보호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공직기강 확립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사건사고를 최소화 하는 한편 물가관리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또 명절이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성수품의 지역 특산물 둔갑판매 예방을 위해 14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귀성객이 편안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설 명절이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수송 및 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진료기관 43개소 등과 비상의료체계 구축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군민 위문으로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휴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 수수 등 공직기강을 엄중 확립한다.

정감 있는 고향분위기 조성을 위해 쾌적한 마을 안길 조성과 귀성객 환영 현수막 게재를 장려하고,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휴기간 중에는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수거와 함께 공중화장실도 수시 점검하게 된다.

진도읍 설 연휴 쓰레기 수거는 16일, 17일 휴무하고 15일과 18일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광판 홍보와 함께 전단지를 제작,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들이 주요 시가지에서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설 연휴기간 중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 분야별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사랑하는 친지·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女단체協, 지역 특산물 홍보대사

서울 서대문구청 광장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정님)는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지역 특산물 알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서대문구청, 장흥군 재경향우회와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흥한우와 아르미쌀, 표고버섯, 무산김, 매생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무료 시식코너를 운영해 대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등 판촉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이날 장흥한우를 비롯한 특산물 구매를 위해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행사는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홍정님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서대문구청과 연계하여 명절 때 마다 참여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장흥군 한우와, 표고버섯, 무산김을 찾아주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우리군 농어민과 축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 많은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흥군과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판촉활동으로 1억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흥필 기자

무안군, 설맞이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전남도와 합동으로 무안읍 · 일로읍 전통시장 방문

무안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지난 6일(일로읍)과 9일(무안읍)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맞아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캠페인과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안내를 실시하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용 시장바구니, 부착식 파스, 안마기 등을 배부하며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5년차를 맞아 도로명주소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밀착형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군민들의 주소활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지번주소나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해 검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주소 조회 및 도로명주소안내도 열람이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30년 넘은 돌산 송도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식 개최…주민 100여명 현장 나와 축하

송도분교 옆 자리…진료실 · 건강증진실 등

여수 돌산 송도에 최근 보건진료소가 신축됨에 따라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돌산 송도에서 송도보건진료소 신축 준공행사가 열렸다.

이날 준공행사는 지역 도·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의 참석 속에 경과보고, 현판제막,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송도보건진료소는 현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 옆에 지상 1층, 면적 149㎡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진료실,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다.

기존 진료소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고 시설이 좁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진료소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배려하는 설계가 적용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앞두고 있다.

진료소 신축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국·도비, 시비 등 총 4억5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부터 신축공사가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혈압, 당뇨 등 각종 건강지킴이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치매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진행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여수=송기홍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서망산 보행가교 '서망산 구름다리' 확정

115건 공모안 접수

완도군은 군내리 서망산 일원의 서망산 보행가교 명칭을 '서망산 구름다리'로 확정했다.

'서망산 구름다리' 명칭은 지역명을 넣어 지역의 홍보 효과와 쉽게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종 선정 됐다.

지난해 12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해 115건의 공모(안)이 접수됐으며, 1차 사전심사를 거쳐 2차 최종심사를 실시해 청산면에서 제안한 '서망산 구름다리'로 최종 확정했다.

본 사업은 국도 77호선 개통으로 30여 년 간 단절된 서망산~상왕봉 간 등산로를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서망산 구름다리는 완도군 군조인 갈매기와 완도 특산품인 전복과 해조류를 모티브로한 아치교다.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차량 이용자의 시야확보와 각종 치안예방 및 야간 이용객들의 안전한 산행은 물론 환상적인 조명 연출을 통해 포토존 효과 또한 톡톡히 하고 있다.

천종실 환경산림과장은 "추가적으로 중도리 일원의 단절된 등산로를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초개산 등산로 연결사업'을 추진해 상왕봉~서망산~완도읍 시가지 일주코스를 완성할 계획이다"면서 "지속적으로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경관개선을 통해 완도군 가치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